2012. 12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MBC

2012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2012.12.26	대전MBC 대회의실	9/10	6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김형주 위원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종국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김종찬 편성제작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차태헌 방송기술센터장, 오승용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6	8	-	1	15	-	15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5	10	-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8 건	8건	11월
교양	생방송 아침이 좋다 어수선한 소품 다소 혼란스럽다	MC석과 출연자석 혼란스런 소품 정리	11월
교양	토크 앤 조이 여MC 역할 미흡	여MC 역할 확대	11월
보도	토론 프로그램 대선후보 선거공약 검증 필요	토론 프로그램에서 의제로 다루어 검증	11월
보도	뉴스 코너인 '기행탐사 충청' 기획의도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어야	충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소재로 접근	11월
교양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행사주체 또는 사업자의 일방적 홍보가 되지 않게 제작해야	사업자의 일방적 홍보가 되지 않게끔 제작에서 거르고 있음.	11월
교양	시사프로그램에서도 문화 관련 소재도 취재 필요	시사플러스 문화관련 아이템으로 다루고 있음.	11월
교양	시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대상자를 다양하게 담아 프로그램 완성도 높혀야	프로그램 완성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균형성과 심층성 담보하는 제작기법 활용하고 있음.	11월
보도	무책임한 대전시 전시행정 사례 밝혀야	예로서 대전시의 드라마페스티벌 문제점 지적함. 감시기능 강화하고 있음.	1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시사플러스'의 <재개발 열풍 그 후>편을 잘 봤다. 현재의 top-down 방식의 문제점을 잘 짚어주었다. 지역주민들에게 무분별한 재개발의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아쉬운 점은 지역주민 참여형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방식을 취한 국내의 도시재생 사례의 정보를 함께 제공해 주었다면 대안 제시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으리고 본다(오덕성).	대안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해결의 난맥상이 있는 것이 도시 재개발이다. 앞으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례를 통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 <하상도로 철거, 녹색도시로 가는 길>편은 대전시가 단 한 번의 공청회를 열고 대안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성급히 시행하려는 것을 잘 지적하였다.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청주 무심천변의 사례를 소개해 주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대전시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방법을 밀도 있게 조명해 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단순히 소개로만 그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다(오덕성).	방송 후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제작기간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적은 인력, 제작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프로그램 방송고지가 활성화 되지 않은 것 같다. 프로그램별로 예고 방송을 활성화시켜 시청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유도했으면 한다(김명수).	프로그램 방송고지는 제작진에게 의무이다. 대부분의 제작진이 방송고지를 이행하고 있다. 행사PR이 많다보니 방송고지가 적게 송출되는 느낌이 있다.	편성 수용
교양	대선 관련 뉴스가 많은 가운데 시사플러스에서 농어촌 결식아동 문제를 다루어 보기 좋았다. 지역현안을 다루고자 하는 고민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결식아동에 관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밀착 취재하여 소개를 해 주었더라면 프로그램의 소구력이 높아졌을 것이다. 결식아동 관련 해당 공무원, 지역봉사단체 등 위주로 인터뷰를 담아 아쉽게 느껴졌다. 정부 시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송인덕).	탐사 프로그램 제작은 인력과 제작기간과의 싸움인 것 같다. 프로그램 제작에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되지 않아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제작시 문제제기와 더불어 솔루션 대안제시에도 노력을 다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생방송 토론마당'에서 대선 관련 주제를 다루었다. 대전 충남 관련 지역 공약을 심도있게 다루었어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	대선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앞으로 생방송 토론마당에서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여 심도있게	보도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정에서 지역갈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토론마당에서 다루었어야 한다고 본다(송인덕).	조명해 나가겠다.	
교양	대선에서 50대 표심을 읽지 못한 정당이 패배한 듯싶다. 30대는 육아, 40대는 청소년, 자녀문제, 50대는 가장의 실직, 재취업 등의 문제가 다가온다. 프로그램에 연령별 타깃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유덕순).	중요한 지적이다. 지적하신 연령별 타깃을 제작진도 항상 유념해 아이템 선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편성 수용
교양	프로그램 제안을 하고자 한다. 건강관련 프로그램으로서 '건강플러스'가 있듯이 육아정보를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떠한가?(유덕순)	육아정보프로그램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으로 신설하기엔 여러 한계가 있다. 필요한 육아정보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에서 재개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재개발 지역에 고밀도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 뿐 인 것 같다. 서울시도 뉴타운 개발 관련 매물비용 때문에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대전시의 재개발 경우도 매물비용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취재가 약했다고 본다(장동환).	재개발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 지적하신 문제점은 시정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대선 관련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활발한 토론을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구성방식이 지나치게 기계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토론 패턴을 지적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지역에 전문적인 식견 있는 패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어찌보면 지식인들이 방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다. 경영자문위원회, 시청자위원회 등과 같은 전문자문위원회를 가동하여 인적자원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고 본다(장동환).	패널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방송을 통해 사회갈등을 치유해야 한다. 내포신도시, 세종시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이슈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김영광).	내포신도시에서 이동보도국을 진행하는 등 국토의 중심축 이동에 따른 뉴스의제 설정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	보도 수용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보도	선거관련 토론 프로그램과 뉴스는 공정과 같은 의미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본다. 선거 관련 방송은 종합편성채널이 선수를 쳤다. 대선 관련되어 대전MBC 역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대선 관련 후보들의 지역공약을 이슈화하여 지역민들에게 면면을 정확히 할 필요도 있었고 후보자들에게도 지역현안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켰어야 된다고 본다. 대선 프로그램은 모름지기 타 방송사보다 먼저 이슈를 선점하여 치고 나왔어야 하는데 이점이 너무 아쉽다(김경숙).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준이라고 보아지는 종편의 대선보도는 공중파방송이 지향할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진다. 두 달간에 걸쳐 공약과 정책 역제안 기획 보도를 했으나 시청자들에게 각인되지는 못한 부분은 있었다고 본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토론마당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미리보기란이 공백으로 비워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전에 패널은 누가 출연하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보기에 상세하게 게재해주길 바란다. 홈페이지를 관리를 잘해주길 바란다(김경숙).	홈페이지 관리에 보다 충실하겠다.	보도 수용
교양	주말 프로그램을 보면 젊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50대를 위한 프로그램은 종합편성채널이 오히려 지상파방송사보다 적극적으로 많이 편성하고 있는 듯 싶다. 대전MBC도 주말 프로그램에 장년층을 위한 편성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박희원).	장년층이 TV 시청의 주요 세대인것을 잘 알고 있다. 아다시피 '허참의 토크&조이'가 40, 50대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역 출신 인사들의 허심탄회한 인생사를 담고 있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최근 엑스포 과학공원내의 롯데기업의 참여와 관저동의 신세계기업의 참여 문제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주시하여 지속적으로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다루어지길 기대한다(한찬희).	교통과 골목상권 보호 등 다양한 문제제기를 통해 접근하겠다.	보도 수용
기타	2012년은 MBC파업사태로 인해 일부 시청자들이 MBC를 떠나갔다. 앞으로 각고의 노력과 프로그램 신뢰를 통해 시청자들이 다시 MBC를 찾게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자(송인덕).	깊이 느끼고 있다. 훈훈하고 따뜻한 방송, 지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담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편성보도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